

한국신문의 유전자 연구 프레임 비교 분석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정재철*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본 논문은 과학보도에서 언론이 과학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구성하여 독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한국 언론, 특히 신문들이 신문사들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적 지형에 따라 유전자 연구에 대해 어떻게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신문 프레임 연구 방법을 통해 밝힌다. 특히, 한국 언론의 유전자 연구에 대한 현실 구성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봄으로써 유전자 연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분석결과, 배아복제 실험과 같은 유전자 연구의 윤리적, 경제적 이슈가 담긴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문사들이 지향하는 이념적 지형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유전자 연구에 대해 칼럼 집필자들 역시 다양한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신문사들의 이념적 지형에 부합되는 경향성을 보이는 프레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신문은 유전자 연구의 법적, 윤리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공론장으로서의 역할과 생명과학의 대중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키워드: 생명공학, 미디어 프레임, 공론장

1. 연구 목적

1993년 10월 13일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메디컬센터 연구팀이 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배아를 복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같은 유전인자를 가진 인

간을 복제할 수 있는 의학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후 2000년 6월 26일에는 미국 등 18개국 연구진이 참여한 인간게놈 프로젝트(HGP)와 민간기업인 셀레라 제노믹스가 유전자 염기 서열 규명 작업의 대가를 완료했고, 2002년에는 아이슬란드의 한 유전공학 기업인 디코드 제네틱스(Decode Genetics)사가 고해상의 인간 유전자 지도를 완성함으로써 DNA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전자 연구의 성취와 함께 인간 복제 실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생명공학 분야에서 인간의 과학적 탐구의 영역은 어디까지이며 생명 존중과 관련해 윤리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한국사회에도 현실적인 문제로 성급 다가서게 되었다. 생명공학자들은 과학자들이 복제 연구를 하려는 것은 우량 유전자를 지닌 동물에서 양질의 축산 식품을 값싸게 공급하거나 복제 동물들을 통해 약리 물질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복제 기술을 통해 암이나 치매 등 난치병 치료의 열쇠인 줄기 세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복제를 우려하는 종교단체를 비롯한 시민 사회의 구성원들은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는 실험을 해도 좋은가에 대한 원칙적이고도 윤리적인 문제 제기, 인간 복제 실험이 인간의 존엄성 파괴가 아니라 인류 행복의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복제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근거로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실상, 배아복제, 유전자 변형 식품, 배아간세포, 동물복제, 유전자치료 등을 둘러싸고 90년대 이래 점차적으로 생명공학 연구 범위와 윤리적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소개된 이래 2000년 이후에는 생명윤리법 제정 문제를 계기로 인간 유전자 연구에 관련된 윤리, 법, 문화, 교육 등을 둘러싸고 생명공학 학자들과 재계, 윤리학자, 종교학자, 시민단체들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국면에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학수(1987)는 일찍이 “과학언론의 역할과 과제”라는 연구에서 언론의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과학언론을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시켜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대중을 향한 정보의 교환

을 위해 과학 언론의 활성화가 중요하며 추상적이며 전문적이며 복잡한 과학정보를 언론이 쉽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최윤희(1990)가 시행한 “우리나라 신문의 과학보도의 정확성 연구”나 정대철(1996)이 시행한 “과학보도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언론의 과학보도는 오보가 많고,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보도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언론과 과학 보도에 관련된 외국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탄카드와 라이안(Tankard & Ryan, 1974)이 행한 신문의 과학보도 기사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역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과학 관련 기사 중 8.8%만이 정확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219-225쪽). 이와 더불어, 이광영(1995)이 시행한 “과학보도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보도의 비전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동규는 “현대 언론과 과학문화”라는 논문에서 한국과 미국의 신문이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구성하여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 미국은 물론 국내 과학기술보도에 있어서 신문기사의 정보원이 편중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언론 모두 국내 정보원 중에도 일반 전문가나 단체의 정보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며, 정보관련 연구 기관도 주요 정보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정 정보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곧 정보원의 의도대로 정보가 왜곡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2000, 176쪽).

이상과 같은 국내 언론의 과학보도 연구 사례들은 과학보도에서 언론의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언론이 과학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구성하여 독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 언론이 과학기술에 관련된 사실을 자의적인 잣대로 왜곡 보도할 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언론, 특히 신문들이 신문사들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적 지형에 따라 유전자 연구에 대해 어떻게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 언론의 유전자 연구에 대한 현실 구성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해봄으로써 유전자 연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모색해보려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담론적 전략으로서의 미디어 프레임

담론이란 동일한 언어체계를 서로 다르게 사용해 사물에 의미부여를 결정짓는 방식을 일컫는다(Macdonell, 1986). 이와 같은 담론이 의미를 창출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기호를 선택하고 결합하는 것이다. 또한, 의미를 창출하는 담론적 전략 중의 하나는 거프만(Goffman, 1974)이 제안한 프레임(frame)이라 할 수 있다. 거프만(Goffman, 1974)에 의하면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사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사건으로서 사건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프레임(frame)에 의하여 제한되며, 키(key)를 통해 변형된다. 키(key)는 프레임의 변화와 수정(correction)과 변형(transformation)에 관해서 설명한다. 다른 말로, 프레임이란 어떤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범주들(categories)이며 사건들을 지배하는 조직의 원칙인 것이다.

특히, 하나의 사회학적인 구성요소로서, 프레임들은 특정한 전망을 촉진시키는 방식 속에서 상징적인 물질을 조직하는 사회 구조들로서 정의된다(Gamson, 1992; Kosicki & Pan, 1996). 특히, 하나의 담론적 전략으로서 미디어 프레임들은 공적인 문제들을 정의, 진단, 평가, 정책 추천을 포함하면서, 담론들에 의해 표현된 사회적 관심들에 봉사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Entman, 1993). 따라서, 미디어 프레임은 사회의 공적인 담론들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담론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Turker, 1998, p. 143). 사실상, 프레이밍(framing)의 과정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적인 이슈들에 대해 생각하고 대화하는 상징적 강령이나 근거(platform)를 형성한다(Kosicki & Pan, 1996). 이렇게 볼 때, 미디어 프레이밍은 핵심적인 낱말들, 이미지들, 그리고 주제들이 특정한 사실들, 해석들 그리고 판단들을 촉진하고 강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Entman, 1993; Gamson, 199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기제로서의 미디어 프레임은 현실의 특수한 측면만을 차별적으로 부각시키거나 특정

사안의 다양한 요소들 중 어떤 것은 선택적으로 강조하고 다른 것은 체계적으로 무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언론은 어떤 이슈에 대해 통일성과 질서를 부여하고 그 이슈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정의하고 재정 의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미디어 프레임은 특정 이슈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그것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이슈의 쟁점에 관한 국민적 참여의 폭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그 이슈의 쟁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의 폭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Tuchman, 1978; 이동근, 1999). 사실상,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 연구들(the Glasgow University Media Group, 1980; Binder, 1993)의 결과들은 미디어 프레임이 현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사건들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며, 그로 인해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는 여론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미디어 프레임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 이준용(2000)은 프레임 연구의 문제 의식과 연구 의식을 바탕으로 네가지 접근 방식으로 대별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첫째, 프레임 개념을 사회운동의 조직 과정에 적용시킨 '사회운동론적 접근', 둘째, 고프만의 프레임 개념을 담은 분석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도출된 지식 체계로서의 프레임 개념을 포용한 '사회적 상호작용 시각', 셋째, 메시지의 구성 방식과 수용자의 행동선택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적 설명을 추구하는 예상이론적 접근, 넷째, 텍스트에 내재한 프레임과 수용자의 인지적 프레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메시지 효과론적 접근'이 있다(pp. 85-152).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본고가 기대려고 하는 연구 방식은 이준용의 분류 방식에 의하면, 텍스트 분석적 접근이며, 이 접근 방식은 텍스트의 현실 구성적인 측면, 즉 텍스트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사실상, 프레임 연구의 텍스트 분석적인 접근 방법은 정치-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주로 분석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이유는 텍스트 분석적인 접근의 주된 관심이 곧 특정 이슈에 대한 언론의 의미를 둘러싼 투쟁으로서 정치적 의미구성을 탐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Gitlin, 1980; Entman, 1993;

이준웅, 2000). 이와 같은 텍스트 접근 미디어 프레임 연구에서 미디어 프레임의 의미를 종합해 본다면, 미디어 프레임이란 단순히 특정 이슈에 대한 선택적 측면이거나 특정 뉴스의 중심적인 해석적 틀일 수도 있고, 이러한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문화적이고 이념적인 상징체제로 이해되기도 한다는 것이다(Reese & Bucklew, 1995).

사실상, 미디어 프레임 연구 동향은 언론에 나타난 보도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다가 대체로 90년대 이후에는 언론의 프레임이 개인이나 집단에 미치는 영향 즉 미디어 프레임 효과를 고찰하는 쪽으로 연구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Iyengar, 1991; Smith & Petty, 1996). 이준웅(2000)이 지적하는 것처럼, 뉴스 프레임이 구성되는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할수록 뉴스 프레임의 현실적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 검증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서 발표된, 이준웅(1997)의 “언론의 틀 짓기 기능과 여론의 변화”에 대한 연구, 김지웅(2000)의 “공중의 정치 쟁점 틀짓기”에 관한 연구, 손영준(2003)의 “대학생의 미디어 이용과 대북 문제에 대한 보수-진보적 의견”과 같은 논문에서 다루어진 언론의 프레임 효과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2) 과학보도 미디어 프레임 선행연구

뉴스 미디어들의 과학보도에 관련된 외국의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미디어의 과학보도 프레임화에 사용되는 장치들의 첫번째 유형은 뉴스 미디어들의 관행이나 스테레오타입임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아인시텔은 캐나다 신문이 과학과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프레임 했는가에 대해 연구했다. 그의 연구 분석 결과는 캐나다 신문이 과학과 테크놀로지 기사들을 자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다룬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신문에서 다루는 과학 기사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과학기사들은 대체로 과학

의 과정(processes of science)들에 관련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Einsiedel, 1992, pp. 89-102). 또한 콘디트와 페르구손 그리고 카셀과 파로트의 미국 신문의 뉴스 헤드라인과 유전결정주의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신문들이 헤드라인에서 유전학을 유전 결정주의적으로 내용을 해석함으로써 유전학을 부정절하게 프레임한다고 밝히고 있다(Condit, Ferguson, Kassel & Parrott, 2001, pp. 379-395). 이와 더불어, 둔우디와 스키타의 신문과 과학 뉴스에 관련된 연구 결과 역시 미국 언론에서 과학적 사실이 뉴스의 선택기준이나 보도관행 때문에 생략되거나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Dunwoody & Scott, 1982, pp. 52-59).

두번째 미디어의 과학보도 프레임화에 사용되는 장치들은 언론사의 과학에 대한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사례들을 살펴본다면, 맥코마스¹⁾와 시몬은 뉴스 미디어들이 과학의 영역에서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들을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10년간에 걸쳐 뉴욕타임지나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중앙지들을 중심으로 내용분석했다. 이들의 연구결과 신문기사들은 과학에 관련된 이해관계의 갈등들을 항상 부정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cComas & Simone, 2003, pp. 395-419). 또한, 샤차르는 뉴스 미디어에서 어떤 이유로 여성 과학자들을 집중 조명하는지를 사회적인 문맥에서 분석했다. 샤차르는 그 이유를 징표주의(tokenism)에서 설명하면서, 뉴스미디어가 여성과학자를 묘사하는 데 일정한 방향성을 띠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hachar, 2000, pp. 347-358).

세번째 미디어의 과학보도 프레임화에 사용되는 장치들의 유형은 상업주의와도 크게 관련되어 있다. 군터, 킨더러와 베이레벨트의 생명기술의 공적인 이해와 언론매체에 관한 연구는 과학자 집단이나 저널리스트 집단 모두 생명기술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언론 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나 저널리스트들의 생명기술에 대한 보도가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드라마틱하며, 저널리스트들이 복잡한 과학 이슈들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좀더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Gunter, Kinderlerer & Beyleveld, 1999, pp. 373-394).

네번째 뉴스 미디어의 과학 보도 프레임화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는 언론사가 지향하는 독자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레벤스타인은 미국의 엘리트 언론(특히 뉴욕타임스와 뉴스위크)이 1970년에서 1999년 사이 생명기술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들 언론들의 생명 기술에 관련된 보도의 특성은 생명기술들에 대해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며, 경제적인 전망과 과학적인 진보로 구성된 프레임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레벤스타인의 연구결과는 이들 언론의 이와 같은 보도 경향의 출발은 1990년대 후반 생명복제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들 언론 외의 많은 언론들이 생명기술의 윤리와 모순점에 대해 강조하는 시점에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Levenstein, 2002, pp. 359-391).

이와 같은 외국의 선행 연구 결과들은, 한국 신문 역시, 외국과 사회·문화적 맥락은 다를 수 있지만, 과학기사로서의 유전자 연구라는 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첫째, 언론인 개인 차원에서는 언론인의 전문가 규범, 편견, 스테레오타입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둘째, 언론사 조직의 차원에서는 언론사의 유형이 유전자 연구 관련 보도 프레임화에 사용되는 중요한 장치들이 될 수 있음을 예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특히, 텍스트 분석적 시각에서 유전자 연구에 대한 국내 신문의 미디어 프레임에 의한 현실 구성에 주목하면서, 언론사 조직의 차원에서 보수/진보로 대별되는 국내 중앙지의 이념적인 차이가 유전자 연구에 대한 프레임 사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려 한다.

사실상, 90년대 이후 생명공학의 문제 역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들에 의해 윤리적 이슈와 생명법률안 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정당, 생명과학자, 시민사회 단체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을 빚으며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아왔으며, 무엇보다, 유전자 연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이면에는 생명공학의 발달을 과학의 진보, 경제성장의 동인, 혹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 차원 등의 첨예한 이념적이고도 문화적인 시각의 대립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문 역시 보수/진보의 이념적 차이에 따라 유전자 문제에 대해 어떠한 프레임들을 사용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문제가

될 수 있다.¹⁾

사실상,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의약분업, 언론개혁과 같은 사회적 갈등 보도에 있어서 신문사들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른 현실구성 혹은 왜곡과 편파보도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다(김동규, 2000; 양정혜, 2001; 정재철, 2002).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한국 과학보도의 프레임 연구에 대한 부분적인 탐구로서, 과학 보도 프레임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효과 분석에 앞서, 텍스트 분석적인 접근에서 신문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미디어 프레임의 현실 구성을 비교 분석해보려 한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선정

유전자 연구에 대한 한국 신문의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 무엇보다 연구 대상으로서는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국민일보의 지난 10년간 유전자 연구에 관련된 154건의 사설과 칼럼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선택한 이유는 두 신문이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신문으로서 유전자 연구에 대한 입장 역시 상이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일보의 경우 보수와 진보와는 다른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창간된 대표적인 신문으로서 유전자 연구에 대한 입장에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²⁾

-
- 1) 정치 이념적 지형으로서 보수가 미지의 것에 비해 이미 알려진 것을 선호하고 점진적 변화를 통해 사회 공동체 발전을 이뤄가려는 입장이라면 진보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존 질서의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추진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 2) 임동욱(2003)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에 관한 언론의 보도와 해석에 있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는 보수적 입장을 그리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대한 매일은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에 있어

KINDS를 통해 분석대상 사실과 칼럼들을 확인한 후 5일간의 사실과 칼럼을 무작위로 2~3회 선택해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사실과 칼럼에서 사용된 프레임들을 심층 분석했다. 프레임을 분석하는 방법은 선행 연구들(Semerko & Valkenburg, 2000, 박선희, 2001)에서 사용한 귀납적 방법을 활용했다. 즉 사실과 칼럼에서 어떠한 프레임들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 연구자가 사전 분석을 통해 프레임 유형을 모두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출한 프레임들을 근거로 프레임 유형을 분류하는 원칙을 작성한 후 전체적으로 실제 분석을 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8개의 프레임 유형을 작성하고 본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154건의 사실과 칼럼 기사에서 프레임들이 8개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였다. 이러한 분류작업과 함께 판정이 이루어지고 확인된 178개의 프레임들은 코딩지에 명명된 번호로 전환되었다.³⁾ 두명의 코더간 신뢰도는 신문사 별로 10개씩 모두 3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홀스티(Holsti, 1969)의 신뢰도 계산 공식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는 0.90으로 높게 나타났다.⁴⁾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작성된 사실과 칼럼의 프레임 유형은 다음과 같다.

2) 뉴스 프레임의 유형과 조작적 정의

(1) 생명 및 인권 존중 프레임(A frame about life and human right

이념적 지형은 대체로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차이에 기인한다는 점과 신문사의 사시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신문들을 보수/진보의 틀로 구분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3) 한 건의 기사에서 복수의 프레임들이 발견되어 총 분석 대상 기사 수는 154개이지만 최종 판별된 프레임 수는 178개로 증가되었음을 밝힌다.
- 4) 전체적으로 코딩 작업은 필자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코딩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다른 한 명의 코더에게 프레임 유형 분류 기준을 상세히 설명한 후 무작위로 추출된 30개의 기사를 코딩하게 한 결과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respect): 배아 복제나 인간 복제는 범죄 행위로서 인간 존엄성과 생명이 존중되어야 하며, 유전자 정보 공개로 인해 인간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프레임, 생명윤리법 제정의 촉구 등을 강조

(2) 삶의 질 향상 프레임(A frame about the quality of human lives): 배아 세포 복제 및 유전자 연구는 신약 개발 등을 통해 인간 삶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

(3) 경제적 가치 강조 프레임 (A frame stressing the economic value): 유전자 연구 결과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

(4) 균형 강조 프레임(A frame stressing the balance): 윤리적인 측면에서 유전자 연구에 대한 규제와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적으로 유전자 연구의 전략적 육성 필요성 또한 강조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과학윤리와 생명공학 기술발전의 균형을 강조

(5) 환경 감시(A frame about surveillance of environment) 프레임: 유전자 연구 결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

(6) 신비나 흥미 프레임(A frame about a mystery or an interest): 유전자 연구 결과의 신비스럽거나 흥미 있는 부분을 강조

(7) 연구지원 강조 프레임(A frame stressing the research support): 유전자 연구 혹은 생명과학 연구의 육성을 위해 전문가 양성 등 국가적인 지원을 강조

(8) 기타

4. 분석결과

1) 전체 유형별 프레임 빈도와 기사 작성자

(1) 전체 프레임 유형 빈도

전체적으로 볼 때, 아래 <표 1>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처럼, 분석된 8가지 프레임 유형 중 유전자 연구에 대해서 한국 신문은 연구지원 강조 프레임이 20.8% 생명 및 인권 존중 프레임이 19.7%, 그리고 환경 감시 프레임이 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신문이 유전자 연구에 대한 연구 지원의 필요성은 강조하는 반면, 배아복제와 같은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명의 존엄성 파괴에 대한 우려, 유전자 연구로 인해 파생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가해질 수도 있는 제한과 차별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사실과 칼럼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한국 신문이 사용한 프레임들 중, 전체 프레임 중 32.6%에 달하는 생명 및 인권 존중 프레임(19.7%)과 환경 감시 프레임(12.9%)은 유전자 연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면서 유전자 연구에 대한 법적, 윤리적,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프레임들이었다면, 전체 프레임 중 35.4%는 연구지원 강조 프레임(20.8%), 경제적 가치 강조 프레임(7.9%), 삶의 질 향상 프레임(6.7%)은 유전자 연구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유전자 연구의 활성화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된 프레임들이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신문의 유전자 연구에 대한 프레임들은 유전자 연구의 일방적인 활성화 혹은 일방적인 규제의 논리에 치우쳐 있다기 보다는 유전자 연구에 관련된 이슈에 따라 또한 신문사의 입장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 전체 프레임 유형 빈도

프레임유형/신문사	합 (178)
생명 및 인권 존중 프레임	35 (19.7%)
삶의 질 향상 프레임	12 (6.7%)
경제적 가치 강조 프레임	14 (7.9%)
균형 강조 프레임	13 (7.3%)
환경 감시 프레임	23 (12.9%)
신비 및 흥미 프레임	19 (10.7%)
연구지원 강조 프레임	37 (20.8%)
기타	25 (14.0%)

(2) 전체 신문의 프레임 유형별 기사 작성자

아래 <표 2>에서 예시해 주고 있는 것처럼, 전체 신문의 프레임 유형별 기사 작성자를 분석한 결과, 신문사 내외 칼럼니스트 및 기자 집단(논설위원 및 신문사 기자가 24%, 신문사 내·외 칼럼니스트가 18.9%)이 42.9%,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집단(생명과학 관련 교수, 14.3% 및 연구소 근무자, 7.1%)이 21.4%, 기타(종교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가 16.9%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프레임 유형과 기사작성자 유형을 비교 분석해볼 때, 생명과학관련 교수나 연구원들과 같은 전문가들은 칼럼에서 생명 및 인권 존중 프레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반면 연구지원 강조 프레임에 45%, 환경 감시 프레임에 12%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신문사 기자나 칼럼니스트들은 생명 및 인권 존중 프레임을 약 60% 정도 사용했으며, 환경 감시 프레임은 33%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칼럼 기사 작성자의 이해 관계나 혹은 유전자 연구의 이해 정도에 따라 칼럼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2> 전체 신문의 프레임 유형별 기사 작성자⁵⁾

프레임/기사출처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집단	신문사 내·외 칼럼니스트 및 기자 집단	생명과학 비관련 전문가집단	기타 (시민사회 구성원)	합 계
생명 및 인권 존중		14	5	8	27
삶의 질 향상	5	4	3		12
경제적 가치 강조	7	3	1	1	12
균형강조	2	4			6
환경감시	4	7	2	8	21
신비 및 흥미		10	9		19
연구지원 강조	15	6	7	4	32
기 타		18	2	5	25
합 계	33 (21.4%)	66 (42.9%)	29 (18.8%)	26 (16.9%)	154

또한, 한국 신문의 유전자 연구 관련 사설이나 칼럼의 프레임들은 93-98년 사이에 전체 178개 중 22.5% (41개)를 차지한데 반해 99-2002년 중반까지는 77.5% (137개)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유전자 연구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높아진 시기는 비교적 최근인 99년 이후부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유전자 연구에 대한 신문의 본격적인 관심도 비교적 최근에 시작됐지만, 생명공학자들의 언론을 통한 유전공학의 대중화 노력도 비교적 최근에 시작됐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5)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집단'은 생명과학 관련 교수 및 연구소 근무자를 포함한다. '생명과학 비관련 전문가 집단'은 생명과학 분야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교수나 연구소 근무자를 포함한다. '기타'는 종교 단체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지칭한다.

2) 신문사별 프레임 유형별 빈도

아래 <표 3>은 3개 신문사별 프레임 전체를 유형별 빈도수로 분류한 것이다. 이 표를 근거로 3개 신문사가 프레임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표 3> 신문사별 프레임 유형별 빈도

프레임유형/신문사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국민일보	합 계
생명 및 인권 존중 프레임	9 (16.4%)	11 (15.3%)	15 (29.4%)	35 (19.7%)
삶의 질 향상 프레임	3 (5.5%)	6 (8.3%)	3 (5.9%)	12 (6.7%)
경제적 가치 강조 프레임	2 (3.6%)	9 (12.5%)	2 (3.9%)	14 (7.9%)
균형 강조 프레임	5 (9.1%)	5 (6.9%)	3 (5.9%)	13 (7.3%)
환경 감시 프레임	10 (18.2%)	5 (6.9%)	8 (15.7%)	23 (12.9%)
신비 및 흥미 프레임	9 (16.4%)	10 (13.9%)	0	19 (10.7%)
연구지원 강조 프레임	11 (20%)	17 (23.6%)	8 (15.7%)	37 (20.8%)
기 타	6 (10.9%)	9 (12.5%)	12 (23.5%)	27 (15.2%)
합 계	55	72	51	178

(1)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에서 유전자 연구에 관해 사실과 칼럼을 통해 사용한 프레임은, 분석된 8가지 프레임 유형 중 위의 <표 3>이 예시해주고 있는 것처럼, 연구 지원 강조 프레임이 20%, 환경 감시 프레임 18.2%, 생명 및 인권 존중 프레임, 16.4%, 신비 및 흥미 프레임이 16.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제적 가치 강조 프레임은 3.6%, 삶의 질 향상 프레임에는 5.5%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겨레신문이 유전자 연구 담론에서 유전자 연구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유전자 연구로 인해 파생되는 인권 침해 혹은 사회적 갈등에 주목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유전자 연구 담론에서 주로 인권 혹은 인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겨레신문의 칼럼과 사실에서 사용한 생명 및 인권 존중 프레임과 이러한 프레임들을 통해 함축되어 있는 인권 혹은 인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참여 연대 시민과학 센터는 지난 1일부터 ‘인간유전정보 보호법’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민 캠페인에 들어갔다. 인간유전정보의 이용이 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고 진정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면 반드시 이런 보호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 칼럼, 2001-03-26). 유전자 탐구는 숨겨진 출생의 비밀을 알려는 아이의 열렬한 노력과 같다. 하지만 인본주의 원칙을 확실히 하지 않는 유전자 시대는 민권, 민생 분야에서 2보 후퇴가 될 수 있다(한겨레 데스크 칼럼, 2001-02-27).

유전정보에 관해서도 많은 이슈가 있다. 한겨레가족상봉추진본부는 이산가족 1세대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예정이라 한다. 즉 국가 기관이 강제로 일반 국민의 유전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한겨레, 2001-03-26, 칼럼).

벌써부터 열성 유전자를 가진 인간에 대한 소외와 차별, 인종 갈등 등의 어두운 면이 점쳐지고 있다. 과학의 기적을 인류의 복지로 이끌 새로운 도덕적, 윤리적 규범을 만들어가는 데는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첨단 과학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상식이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한겨레 2000-6-28, 사설).

무차별적인 생명조작을 위해서 떼돈만을 벌 꿈을 꾸는 놀부 나라의 초석을 만

들어주는 생명윤리기본법은 문제가 있다(한겨레 칼럼, 2001-06-05). 생명관련 산업은 결론코 이윤에 앞서 윤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소비자와 인류를 우롱하거나 환경과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길로는 아예 들어서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한겨레 칼럼, 2000-04-03).

위의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한겨레신문은 유전자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와 연관해 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기본권을 근거로 법적 규제를 촉구하는 한편, 생명윤리를 고려하지 않고 행해지는 유전자 연구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맹목적인 경제이데올로기에도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선일보

유전자 연구에 관해 조선일보가 사설과 칼럼을 통해 사용한 프레임들은, 분석된 8가지 프레임 유형 중 위의 <표 3>이 예시해주고 있는 것처럼, 연구지원 강조 프레임이 23.6%, 생명 및 인권 존중 프레임이 15.3%, 신비 및 흥미 프레임이 13.9%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한겨레신문에 비해 차이를 보이는 점은 경제적 가치 강조 프레임(12.5%)과 삶의 질 향상 프레임(8.3%)이 전체 프레임의 빈도 중 22.8%를 차지하고 있어 유전자 연구가 갖는 경제적 가치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겨레신문이 환경감시 프레임에 18.2%를 사용한 반면, 조선일보에서는 환경감시 프레임에 6.9%를 사용하고 있어, 한겨레신문에 비해 조선일보에서는 유전자 연구에서 파생하는 보다 긍정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선일보의 유전자 연구 담론에서 드러나는 국가경쟁력 강화 혹은 경제이데올로기는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의 발전은 일반 시민들이 과학과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신기술, 신제품들을 매우 진보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생명공학 관련 법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결국 법 조항 하나로 연구와 개발의 길

이 막힌다면 경제 발전은 심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사회의 여론 지도층은 우리 국민이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50년 후의 한국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조선일보 칼럼, 2000-12-13).

과학자들이 복제 연구를 하려는 것은 우량 유전자를 지닌 동물에서 양질의 축산 식품을 값싸게 공급하거나, 이런 동물들을 통해 귀중한 약리 물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함이다. 또 복제 기술을 통해 암 치매 등 난치병 치료의 열쇠인 줄기 세포를 만들려는 것이다... 하지만 생명복제가 선행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논란이 되는 것이다... 건전한 생명과학만이 시민사회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생명복제 기술이 추구하는 것은 인류 행복의 증진이지, 인간의 존엄성 파괴가 아니다(조선일보 칼럼, 2002-07-27).

위의 사례들은 조선일보에서 유통되는 유전자 연구 담론의 상당 부분이 경제이데올로기(국가 경쟁력 이데올로기)에 기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선일보의 입장은 앞으로 논의될 <표 4>의 프레임별 기사작성자 유형 빈도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아래 <표 4>가 예시해 주고 있는 것처럼, 조선일보의 프레임 유형별 기사 작성자는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들이 대부분 유전자 연구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와 삶의 질 향상,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 한겨레신문과는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3) 국민일보

유전자 연구에 관해 조선일보가 사실과 칼럼을 통해 사용한 프레임은, 분석된 8가지 프레임 유형 중 위의 <표 3>이 예시해주고 있는 것처럼, 생명 및 인권 존중 프레임이 29.4%, 연구지원 강조 프레임과 환경 감시 프레임이 각기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제적 가치 강조 프레임은 3.9%, 삶의 질 향상 프레임은 5.9%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일보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비해 유전자 연구에 있어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반면, 유전자 연구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구체적으로 국민일보에서 사용한 프레임들에 내재해 있는 생명존중 이데올로기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 생명윤리는 아무리 신중히 다루어도 지나침이 없으며 과학자의 호기심이나 기업의 이윤추구보다 생명의 존엄성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생명윤리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각계의 의견을 듣되 생명존중의 정신을 살려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어떠한 인간복제도 시도되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국민일보 칼럼, 2002-03-12).

거듭 강조하거나 인간의 세포를 동물의 그것과 교잡하는 이종간 배아 복제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비록 머잖아 그 기술과 관련한 연구 성과로 인간의 질병 치료에 엄청난 발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엄청난 부작용은 미연에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국민일보 사설, 2002-03-09).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인 인간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복제 실험은 그 어떤 명분으로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이미 들어가서는 안될 창조주의 신성한 영역에 무엄하게도 발을 들여놓았다... 인간 복제는 인류 구원이 아닌 인류 파멸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위협이 될까 두렵다(국민일보 데스크 칼럼, 2001-08-11).

이상과 같은 국민일보의 생명 존중을 중심으로 하는 이념적 지향성은 다음과 같은 프레임 유형별 기사작성자의 유형에 대한 분석에서도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아래 <표 4>가 예시해주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 유형별 칼럼의 기사작성자 빈도에서 국민일보의 생명 존중 가치체계에 동의하는 신문사 기사나 논설위원들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유전자 연구에 대한 국민일보의 입장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3) 프레임 유형별 기사 작성자

좀더 구체적으로, 아래 <표 4>는 프레임 유형별 기사 작성자의 빈도수를 나타내 주고 있다. 아래 표가 예시해 주고 있는 것처럼, 먼저 한겨레신문의 칼럼 기사 출처의 특징을 살펴보면,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들(13.1%) 보다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기타 24%)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겨레신문이 유전자 연구가 안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일반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시민사회 구성원들에게 칼럼을 통한 신문 지면을 상당부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조선일보에서 유통되는 유전자 연구 담론의 상당 부분이 경제이데올로기(국가 경쟁력 이데올로기)에 기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조선일보의 입장은 다음의 프레임별 기사작성자 유형 빈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4>가 예시해 주고 있는 것처럼, 조선일보의 프레임 유형별 기사 작성자는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들이 전체의 3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전문가들이 칼럼에서 사용한 프레임들은 대부분 유전자 연구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와 삶의 질 향상,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 한겨레신문과는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국민일보의 생명 존중을 중심으로 하는 이념적 지향성은 다음과 같은 프레임 유형별 기사작성자의 유형에 대한 분석에서도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아래 <표 4>가 예시해 주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 유형별 칼럼의 기사작성자 빈도에서 전반적으로 유전자 연구의 규제를 반대하는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집단(생명공학관련 교수 4.8%, 연구원 7.1%)이 11.9%에 불과한 반면, 대체로 국민일보의 생명 존중 가치체계에 동의하는 신문사 내외 칼럼니스트 및 기자 집단(신문사 내외 칼럼니스트 19%, 신문사 기자나 논설위원 47.6%)이 66.6%로 나타나 유전자 연구에 대한 국민일보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표 4> 프레임 유형별 기사 작성자

프레임/ 신문사별 기사출처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집단			신문사 내·외 칼럼니스트 및 기자 집단			생명과학 비관련 전문가 집단			기타 (시민사회 구성원)		
	한겨레	조선	국민	한겨레	조선	국민	한겨레	조선	국민	한겨레	조선	국민
생명 및 인권 존중				2	7	5	4	1		1	3	4
삶의 질 향상		5			1	3	3					
경제적 가치 강조		6	1		2	1	1				1	
균형강조	2			1	1	2						
환경감시	2	1	1	1	2	4	1		1	6	1	1
신비 및 흥미					10		9					
연구지원 강조	2	10	3		1	5	3	4		3	1	
기타				3	7	8	1	1		1	1	3
(%)	6 (13.1)	22 (33.3)	5 (11.9)	7 (15.2)	31 (47)	28 (66.6)	22 (47.9)	6 (9.1)	1 (2.3)	11 (24)	7 (10.6)	8 (18.6)

총 분석 사례수 N=154(한겨레 46, 조선일보 66, 국민일보 42)

4) 사실과 칼럼 유형별 프레임

아래 <표 5>는 사실과 칼럼 유형별 프레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겨레신문의 사실은 유전자 연구의 연구지원을 강조하는 프레임(30.3%), 생명윤리와 생명공학의 균형 있는 발전 (20.2%), 그리고 생명 및 인권 존중 프레임(20.2%)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조선일보의 사실은 균형 강조 프레임(66.7%)을 가장 빈번히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일보 사실의 경우는 생명 및 인권 존중 프레임(66.7%)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3개 신문사들이 사실에 사용된 프레임 분석 결과는, 한겨레신문이

유전자 연구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 (인권, 차별, 윤리, 연구지원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독자적인 담론 영역을 구축하면서 유전자 연구 결과가 초래할 사회적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해, 조선일보는 균형 프레임을 통해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보다 중간자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유전자 연구 결과가 초래할 사회적 변화 가능성에 보다 유연하고 수용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유전자 연구에 관련된 이슈에 관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을 기존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의 수용이 보다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구분지을 수 있다면, 한겨레신문이 조선일보보다 좀더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일보 역시 생명윤리를 적극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한겨레신문과는 다른 차원의 기독 이념적 보수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사실과 칼럼 유형별 프레임 빈도

프레임유형/사실·칼럼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국민일보	
	사실	칼럼	사실	칼럼	사실	칼럼
생명 및 인권 존중 프레임	2 (20.2%)	7 (15.2%)	0	11 (16.7%)	6 (66.7%)	9 (21.4%)
삶의 질 향상 프레임	0	3 (6.5%)	0	6 (9%)	0	3 (7.1%)
경제적 가치 강조 프레임	1 (10.1%)	1 (2.2%)	0	9 (13.6%)	0	3 (7.1%)
균형 강조 프레임	2 (20.2%)	3 (6.5%)	4 (66.7%)	1 (1.5%)	1 (11.1%)	2 (4.8%)
환경 감시 프레임	1 (10.1%)	10 (21.7%)	1 (16.7%)	4 (6.1%)	1 (11.1%)	7 (16.7%)
신비 및 흥미 프레임	0	9 (19.6%)	0	10 (15.2%)	0	0
연구지원 강조 프레임	3 (30.3%)	8 (17.4%)	1 (16.7%)	16 (24.2%)	1 (11.1%)	8 (19%)
기타	0	6 (13%)	0	9 (13.6%)	0	10 (23.8%)
합계 (178)	9	46	6	66	9	42

유전자 연구에 관련된 신문의 칼럼에서 사용된 프레임의 분석 결과 역시, 앞서 신문사별 프레임 분석에서도 상세히 언급했었던 것처럼, 각 신문사가 사실에서 표명하고 있는 이념적 지향성과 칼럼 내용의 전반적인 경향성이 부합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한겨레신문에서 삶의 질 향상 프레임과 경제적 가치 강조 프레임이 전체의 11.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조선일보는 22.6%, 국민일보는 14.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환경감시 프레임에는 한겨레신문이 21.4%, 조선일보 6.1%, 국민일보 16.7%를 차지하고 있어, 3개 신문사의 칼럼의 프레임 을 통한 유전자 연구에 대한 강조점이 각 신문사의 사실의 지향점과 부합되는 경향성을 나타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유전자 연구에 대한 한국 신문의 사실과 칼럼에서 사용된 프레임들을 8가지 유형별로 분석해 보는 한편, 칼럼의 기사 작성자를 유형별로 분류해 프레임 유형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국민일보를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3개 신문 모두 유전공학 발전의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아복제 실험과 같은 유전자 연구의 윤리적, 경제적 이슈가 담긴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문사들이 지향하는 이념적 지향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전자 연구에 대해 칼럼 집필자들 역시 다양한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신문사들의 이념적 지향에 부합되는 경향성을 보이는 프레임들을 사용하면서, 유전자 연구에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는 신문사와 신문사, 유전자 연구자와 종교단체, 그리고 시민 사회 구성들 사이에 균열 구조를 지닌 사회적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이러한 본고의 연구 결과는, 신문이 각 사회단체나 학자들의 유전자 연구

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 중에서 미디어 프레임들을 통해 특정한 입장을 선택해 의제화함으로써 유전자 연구를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무엇보다, 한국 신문의 유전자 연구 보도는 독자들이 유전자 연구에 관련된 객관적으로 검증된 과학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공유하게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김동규(2000, 181쪽)가 지적하는 것처럼, 한국 언론의 과학보도에 있어서도 미국처럼 각 전문 영역별로 전문가와 보도 담당자를 매개해줄 수 있는 중립적이며 상설적인 정보관리 및 홍보 체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유전자 연구에 관련된 과학 보도의 전문성과 정확성 그리고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신문지면이 특정 이해집단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실용적인 지면 구성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고의 분석결과는, 무엇보다, 한국언론이 유전자 연구의 법적, 윤리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내기 내해서는 유전자 문제 보도에 있어서 자사의 이념적 지향점을 벗어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과 생명과학의 대중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유전자 연구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찾아내야 한다는 뜻은 하버마스가 지적한 것처럼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이 기술관료와 전문가에 의해 그 목적이 설정되는 소위 기술지배의 사회를 지양하고 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 그 자체를 합리적 담화 안에서 우선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대화적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경만, 2000, 450-451쪽).

사실상, 한국 신문에서 유전자 연구에 대한 법적, 윤리적 이슈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90년대 후반 이후로서 유전자 연구에 대한 신문의 본격적인 관심도 비교적 최근에 시작됐지만, 생명과학자들의 언론을 통한 유전공학의 대중화 노력도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엇보다, 유전자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공론화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생명과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의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 없이 법적, 윤리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도, 바람직한 생명과학 정책 수립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은 생명과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가시키기 위해 과학 전문기자의 활용이나 과학 지면의 배가 등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와 함께, 유전공학 전문가 집단 역시 생명과학의 대중화와 대화의 노력 역시 더욱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전자 연구는, 김정만 (2000, 455쪽)이 지적하는 것처럼, 언론이나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전문가 집단에 국한된 활동이 아니라 과학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전체의 부분이며, 따라서 생명과학의 성장은 사회 구성원들의 믿음과 관심과 지지 뿐 아니라 생명과학 공동체가 법적, 윤리적 이슈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수용하고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정만 (2000). 과학과 대중. 『과학문화의 이해-커뮤니케이션 관점』. 서울: 일진사. 401-456.
- 김동규 (2000). 현대 언론과 과학문화. 『과학문화의 이해-커뮤니케이션 관점』. 서울: 일진사. 101-183.
- _____ (2002). 사회갈등 보도의 새로운 방향 찾기. 『한국언론학보』, 겨울호 제45-1호 5-32.
- 김지영 (2000). 공중의 정치 쟁점 틀짓기: 프레이밍, 지각, 그리고 인지적 틀짓기. 『한국언론학보』, 겨울호 통권 제45-1호, 121-161.
- 김학수 (2000). 현대 생활 속의 과학문화. 『과학문화의 이해-커뮤니케이션 관점』. 서울: 일진사. 21-98.
- 박선희 (2001). “언론개혁에 관한 인터넷 뉴스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여름호 통권 제15-2호, 81-120.
- 손영준 (2003). 대학생의 미디어 이용과 대북문제에 대한 보수-진보적 의견. 제1회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언론학 분과 콜로키움 논문.
- 양정혜 (2000). 사회갈등의 의미구성하기: 의료분쟁보도의 프레임 분석,

- 『한국언론학보』, 봄호, 제 45-2호, 284-315.
- 이동근 (2000).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역언론의 남북문제 보도태도: 사실에 나타난 미디어 프레임 분석. 2000년 봄철 광주전남 언론학회 발제 논문.
- 이광영 (1995). 과학보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3회 언론 자율 제도화를 위한 워크숍: 과학 뉴스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
- 이준용 (1997). 언론의 틀짓기 기능과 여론의 변화. 『언론과 사회』, 제17호 가을호, 100-135.
- _____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제 29호 가을호, 85-152.
- 임동욱 (2003). 정치보도 당파성: 가식적 공정성보다 솔직한 당파성 필요. 『신문과 방송』, 2003년 9월호.
- 정대철 (1996). 과학 보도의 정확성에 관한 조사. 『과학보도』, 한국언론연구원.
- _____ (1992). 미국의 반낙태운동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보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92년 한국언론학회 봄철 학술대회 발표논문.
- _____ (2002). 한국언론과 이념 담론. 『한국언론학보』, 제46-4호, 314-348.
- 최윤희 (1990). 우리나라 신문의 과학 보도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 과학기술처.
- Asinov, I. (1983). Popularizing Science. *Nature*. Vol. 306. No. 10.
- Ben-David, J. (1984). *Scientist's Role in Society*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inder, A (1993). Construcrting racial rhetoric: Media depiction of harm in heavy metal and rap music.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1), pp. 753-767.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pp. 51-58.
- Condit, C, Ferguson, A, Kassel, R & Parrott, R (2001). An Exploratory Study of the Impact of News Headlines on Genetic Determinism. *Science Communication*, 22(4, June). pp. 379-395.

- Curran, J., Grurwitsch, M., & Woollacott (1982). The study of the media: theoretical approaches. In Gurevitch, M., Bennett, T., Curran, J., & Woollacott, J.(eds.),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London & New York: Methuen.
- Doll, R. & Peto, R (1981). The Pure Science Ideals and Democratic Culture. *Science*, 156.
- Einsiedel, E (1992). Framing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Canadian pres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1(January). pp. 89-102.
- Fields, E (1984). Preachers, Press, and Politics: The Media Career of a Conservative Social Movement.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in the University of Oregon.
- Gamson, W (1992). *Talking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y: California Press, 1980.
- Goffman, I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Gunter, B, Kinderlerer, J & Beyleveld, D (1999). The Media and Public Understanding of Biotechnology. *Science Communication*, 20(4, June). 373-394.
- Holsti, O.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ading, MA: Addison-Wesley.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Macdonell, D. (1986). *Theories of Discourse*. Basil Blackwell. 임상훈 역 (1992). 『담론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
- McComas, K & Simone, L (2003). Media Coverage of Conflicts of Interest in Science. *Science Communication*, 24(4, June), 395-419.
- Nisbet, C & Lewenstein, B (2002). Biotechnology and the American Media: The Policy Process and the Elite Press, 1970 to 1999. *Science Communication*, 23(4, June), 359-391.

- Kosicki, G., & Pan, Z (1996).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media effect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Chicago.
- Pan, Z and Kosicki, G. 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1), 55-75.
- Reese, S. & Buckalew, B. (1995). The Militarism of Local Television: The Routine Framing of the Persian Gulf War.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2: 40-59.
- Scheufele, D.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1), 103-122.
- Semerko, H.A & Valkenburg, P.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 pp. 93-109.
- Shachar, O (2000). Spotlighting women scientists in the press: tokenism in science journalism.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9, October. 347-358.
- Smith M. & Petty, E (1996). Message framing and persuasion: A message processing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2(3), pp. 257-268.
- Tankard, J. W. & M. Ryan (1974). News source perception of accuracy of science coverage. *Journalism Quarterly*, 51. 219-225.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of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1978.
- Tucker, L (1998). The framing of Calvin Klein: A frame analysis of media discourse about the August 1995 Calvin Klein Jeans advertising campaign.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5. 141-157.

(최초 투고 2004.03.01., 최종원고 제출 2004.04.12)

Human Genome Frames of Korean Press

The Analysis of Chosunilbo, Gukminilbo, and Hangurae
Newspapers' Editorial and Column

Jae-Chorl Chung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Dankook University

This paper deals with how Korean press constructs the study on human gene in the process to collect information and distribute them to readers by their ideological characteristics. By using frame analysis method, this paper analysis the reality construction of human gene's studies in critical insights and explores some alternatives for solving the social conflict around human gene's study.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paper suggests that Korean press needs more positive role in establishing a public sphere in order to make a social consensus about ethical issues of human gene's studies.

Key words: Human gene, Media frame, Public sphere